

# 일본의 평생학습정책의 전개와 실천

## -지역재생 정책을 중심으로-

김미란(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 요약

---

일본사회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소자녀화,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세계화, 정보화 등의 지식 기반 산업사회의 도래로 평생학습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애학습을 키워드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생애학습을 통한 지역재생정책의 특징으로는 첫째, 정규학교를 포함한 전생애(life-long), 통생애(life-wide)에 걸친 지역 생애학습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각 부처간의 연계,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강화하고, 셋째,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넷째로는 이 모든 활동을 지역 NPO 등과 같은 공공의 시점에서 추진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다섯째로는 상호학습, 혹은 학습공동체 활동의 학습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리더양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학교이외에서 실시되는 사회교육 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를 아우르는 일본의 평생학습 정책과 그 구체적인 실천 사례는 우리 나라의 평생학습정책을 제고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다.

---

주제어: 평생학습, 생애학습, 지역재생, 공공, 소외계층, NPO, 자원봉사, 리더양성

---

## I. 서론

최근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의 3분 정책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핵심사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지역인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학습기회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

---

\* 제1저자: 김미란(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제도연구실, meerank@kedi.re.kr)

라에서도 1995년 5.31교육개혁에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는 신교육체제의 비전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제시한 이래, 1999년 평생교육법의 제정되고 16개 시도의 지역평생학습정보센터, 218개의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이 지정되어 지역수준의 평생교육정보제공, 평생학습상담, 상호연계체제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비연계성, 일반자치의 평생학습지원의 법적한계, 교육청의 평생학습에 대한 소극성 등,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양병찬 2003). 이가 국가수준의 평생학습에 대한 이념이나 기본방향의 정립, 나아가 지원·추진 체제 등의 미비로 인해 파생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김신일 2003). 선진국들이 평생학습을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하는 것과 달리, 우리 나라에서의 평생학습은 개인의 과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름을 달리하여, 복지, 문화, 노동, 행정, 여성, 훈련 등, 관련부처마다 평생학습 관련활동을 산발적으로 전개하고 있을 뿐, 국가수준의 평생학습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이다(한준상 2003, 이재분 2004).

본 논문에서는,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일본의 평생학습 정책 동향과 그 실천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은 [생애학습<sup>1)</sup>]이란 모든 사람이 생애에 걸쳐 배우는 모든 학습, 즉 학교교육, 사회교육, 문화활동, 스포츠 활동, 여가 활동, 자원봉사활동, 기업 내 교육, 취미 등, 다양한 장소 다양한 기회에 실시하는 학습의 의미로 생애학습 사회를 지향하는 생각, 이념 자체를 나타내는 말](文部科學省 2004a, 125쪽)로 생애학습의 포괄성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애학습사회의 실현(생애에 걸쳐 배우의 기회가 제공되고 배우의 결과가 적절하게 평가되는 사회의 실현)을 ① 교육, ② 과학기술·학술, ③ 문화·스포츠 진흥을 통한 「인재·교육·문화 대국」과 「과학·기술·창조입국」이라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라이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만인을 위한 생애학습]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한 유럽과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생애학습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선도적인 나라](Longworth & Davies 1996)로 불리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 나라 평생학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향후 수정 보완해야 할 방향을 수립하고 전략을 탐색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지역 재생을 위한 일본의 생애학습 정책

1)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의 차별화를 위해 일본의 평생학습은 [생애학습]으로 부르기로 한다.

## 1. 문부과학성의 생애학습정책

### 가. 생애학습체계의 정비

일본에서 생애학습이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생애학습 체계로의 이행]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1984~1987년 임시교육심의회<sup>2)</sup>의 답신이라고 할 수 있다. 1984년 8월 나카소네(中曾根) 내각 직속심의회로 발족한 임시교육심의회는 ①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학습기반의 정비, ② 마음의 여유와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학습수요에 대한 기반 정비, ③ 학력사회의 폐해 시정을 위해 생애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생애학습체계로의 이행을 제안하였다. 특히 1987년까지 4차에 걸친 답신을 통해 학습이란 자유의사에 따라 자기에 맞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입장에서 [생애교육]이 아닌 [생애학습]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여 학교교육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학습활동 이외에 스포츠 활동, 문화활동, 취미오락, 자원봉사 활동, 여가활동 등, 인간이 생애에 걸쳐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거나 활동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주체적 활동임을 분명히 하였다.

1990년 2월에는 중앙교육심의회 [생애학습 기반정비에 대해]라는 답신으로 [생애학습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체제 정비에 관한 법률](약칭 ‘생애학습진흥법’)을 제정하고, 1990년 8월 생애학습진흥법 10조로 당시의 문부성에 생애학습심의회를 설치하였다. 생애학습심의회는 2000년까지 5기에 걸쳐 답신과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화, 고도화와 정보화에 따른 학습지원 서비스의 구축을 기본으로 지역사회 활성화를 추진하였다(澤野 1999). 구체적으로 학습기회의 제공, 학습기회에 관한 정보의 수집·정리·제공, 학습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지도자 연수, 관계기관·단체의 원조 등을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사업으로 하고, 조례에 따라 생애학습심의회를 설치할 뿐 아니라 특정지구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능력을 활용하여 학습기회의 종합적 제공을 위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생애학습추진체제를 정비하였다. 2001년에는 문부과학성의 생애학습국을 생애학습정책국으로 개칭하고 부처내의

2) ‘심의회’와 ‘답신’이란 중앙부처 개혁의 일환으로 문부과학성 대신(장관)의 자문에 응해 중요사항을 조사·심의(심의회)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답신)을 말한다. 2001년 1월 6일자로 종래의 중앙교육심의회, 생애학습심의회, 이과교육 및 산업교육심의회, 교육과정심의회, 교육직원양성심의회, 대학심의회, 보건체육심의회 등의 기능을 정리·통합하여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로 개칭하였다. 중앙교육심의회는 임기 2년(재임 가능)의 학계 전문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① 교육제도분과회(종래의 중앙교육심의회), ② 생애학습분과회(종래의 생애학습심의회), ③ 초등·중등교육분과회(종래의 이과교육 및 산업교육심의회, 교육과정심의회, 교육직원양성심의회), ④ 대학분과회(종래의 대학심의회), ⑤ 스포츠·청소년분과회(종래의 보건체육심의회)의 5분과 6부회로 이루어져 있다(中央教育審議會 2001).

주무국으로 재편·강화하여 생애학습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지역과 민간의 생애학습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학습정책국을 창구로 하는 [지역정책실]과 [민간교육사업실]을 설치하고 생애학습 종합정보지 [마나비(배움)]를 통해 생애학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으로 지방공공단체에서는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생애학습진흥계획을 세워 생애학습추진센터를 통해 생애학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생애학습시정촌 협의회를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교환과 인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시도부현에는 생애학습담당부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생애학습의 총체적인 추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생애학습심의회도 37도 부현에 설치되어 있어 생애학습진흥을 위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과 기본구상을 책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정촌에 생애학습담당부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생애학습 마을/도시] 선언을 하고 생애학습의 진흥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촌도 180지역에 이른다. 또한 학습정보의 제공과 학습상담, 학습수요의 파악, 학습프로그램의 개발을 하는 각 지역의 생애학습진흥 거점인 [생애학습추진 센터] 시설도 41개에 이르고 있으며, 1999년 11월에 전국 생애학습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정촌들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교환과 인재교류 등의 네트워크를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전국 생애학습 시정촌 협의회]에 216의 시정촌이 가맹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文部科學省 2004a).

#### 나. 생애학습에 관한 주요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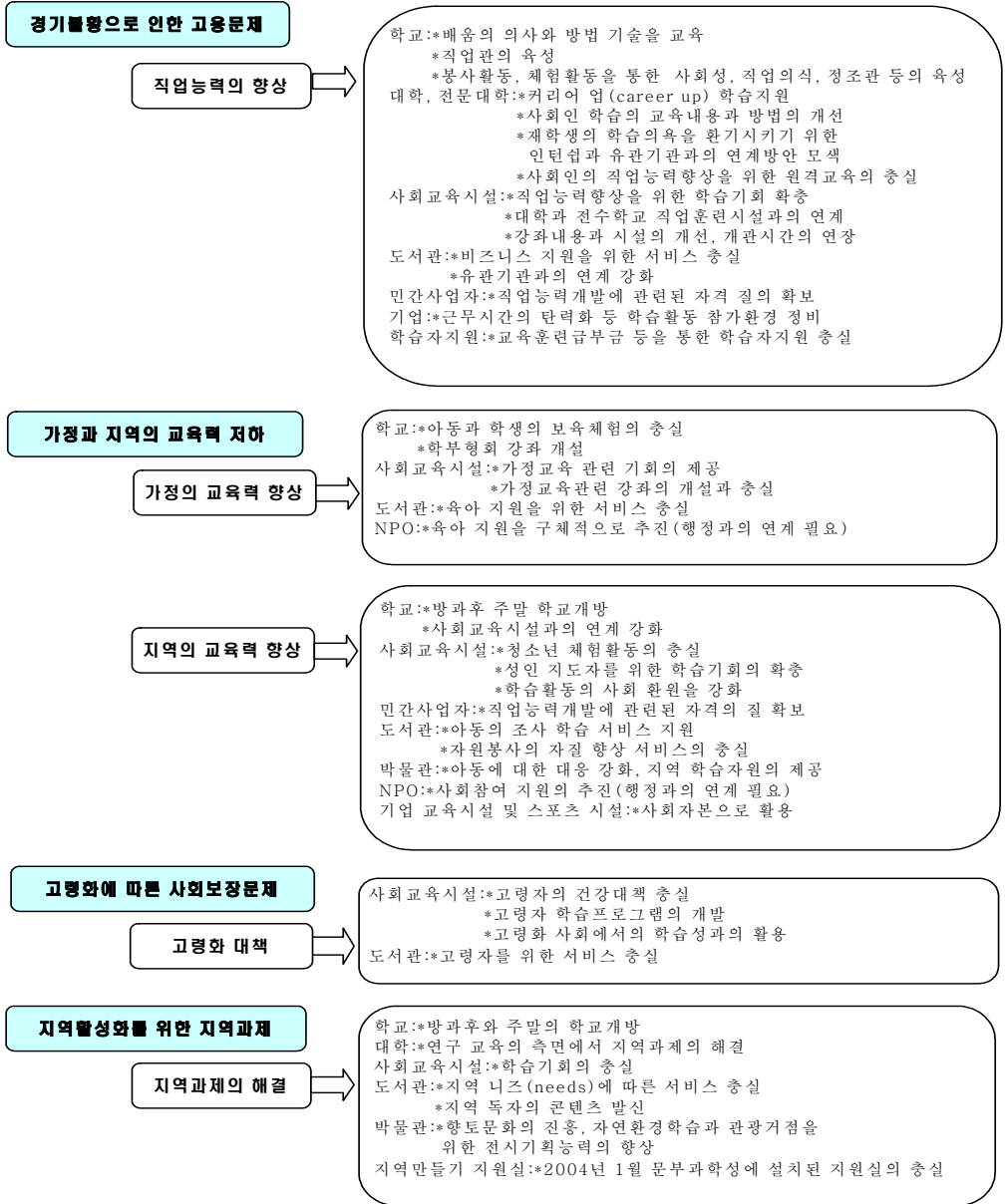
2003년 3월 중앙교육심의회는 답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기본법과 교육진흥기본계획 방안]에서는 근년의 사회정세의 변화로 ① 소자녀화·고령화 사회의 진전, ② 고도정보화의 진전과 지식사회로의 변화, ③ 산업·취업구조의 변화, ④ 글로벌화의 진전, ⑤ 과학기술의 진보, ⑥ 가정과 지역 교육력의 저하를 지적하고 생애학습을 통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中央教育審議會生涯學習分科會 2003). 이에 따라 2004년 2월 29일 중앙교육심의회는 생애학습분과위는 생애학습사회의 구축의 필요성을 첫째,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이러한 학습수요에 대응하고 생애학습의 기반을 정비하는 일은 학습자 자신의 기능·경력의 향상 뿐 아니라 사회제도의 기반이 되는 인재육성으로 이어져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주 5일제로 인한 자유시간의 증가로 정신의 풍요와 삶의 보람을 위한 학습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를 위한 생애학습 기반을 정비하는 것은 학습자의 자기실현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성화, 고령자의 사회참가, 청소년의 건전 육성 등, 사회전체에 의의가 클 뿐 아니라, 셋째 생애학습 기반을 정비하여 학력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 성과]가 적절하게 평가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학력사회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라 하여 생애학

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中央教育審議會生涯學習分科會 2004a). 특히 생애학습을 진흥하는데 있어 중시해야 할 관점으로 첫째, 국민 전체의 인간력 향상, 생애학습에서의 새로운 공공시점의 중시, 셋째, 생애단계별 우선과제를 명확히 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중시하는 생애 단계별 정책 중점화, 넷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습 요구에 따른 다양한 학습 전개, 다섯째, IT의 활용을 들고 이를 위한 추진체제를 활발하게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학습기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학습 성과의 활용과 평가의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中央教育審議會生涯學習分科會 2004b). 먼저 학습기회의 측면에서는 공민관을 비롯한 사회교육기관의 강좌 수는 증가하였으나 교양·취미에 관한 강좌가 많으며(2001년 자료 전체의 37%) 이용자가 특정관계자에 한정되어 일반 주민의 참여가 어렵고, 도서관 역시 설치상황과 서비스 질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1999년 자료에 의하면 시정촌의 설치 지역은 1658개로 전체의 51%에 불과)할 뿐 아니라 비즈니스 지원과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위한 사서의 레퍼런스 기능 향상과 정보화에 대한 대응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교교육의 측면에서는 선진 제국에 비해 사회인 입학이 적고 제도적으로 학습에 어려움이 많은(2003년 고등교육재학자 중에서 25세 이상 성인학생의 비율은 대학원의 경우 15.2%에 지나지 않으며 대학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경과한 학생의 비율은 1.1%)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유관기관과의 연계의 측면에서는 학교관계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학교와 사회교육시설과의 연계, 행정과 민간교육사업자와의 연계·협력의 미비를 들고 1998년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시행을 계기로 등장한 NPO(Non-Profit Organization)<sup>3)</sup> 단체와 자원봉사활동은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연계의 지역격차(2002년 자료의 의하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와 민간연계:47%,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와 NPO 연계:47%, 시정촌교육위원회와 민간연계:15%, 시정촌 교육위원회와 NPO 연계:28%)로 인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사회 각 분야에서 계속적,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하며 국제연합 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정부 이외의 조직, 혹은 민간단체 중에서도 개발, 인권, 환경 등의 문제를 다루는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의 상위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비영리 활동으로는 ① 보건, 의료, 복지 증진활동, ② 사회교육추진 활동, ③ 도시/마을 만들기 추진활동, ④ 문화, 예술, 스포츠 진흥 활동, ⑤ 환경보전 활동, ⑥ 재해구조활동, ⑦ 지역안전활동, ⑧ 인권옹호 및 평화추진 활동, ⑨ 국제협력활동, ⑩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추진활동, ⑪ 아동의 건전육성 활동, ⑫ 이상의 각 활동단체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한 연락, 조원, 원조 활동 등을 말한다.



[그림 1] 일본의 생애학습 중점시책 방향

출처: 中央教育審議會生涯學習分科會(2004b) 「今後の生涯學習の振興方策について(審議經過の報告)」에서 작성.

세 번째, 학습 성과의 평가와 활용 면에서는 생애학습이 개인의 학습의욕에만 대응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학습 성과의 평가 활용을 위한 시도가 적고, 특히 폭넓은 연계를 목적으로 설립된 현민 칼리지의 경우, 타 기관과의 연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2003년 자료에 의하면 대학과 연계: 28, 문화센터와 연계:12, 직업훈련시설과의 연계:1) 인재은행 등을 통한 학습 성과의 사회 환원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인식을 바탕으로, 경기 불황으로 인한 고용문제, 가정과 지역의 교육력 저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현대적 과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능력의 향상, 가정의 교육력 향상, 지역의 교육력 향상, 고령화 대책, 지역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재정지원 현황

이러한 생애학습사회의 구현을 위한 문부과학성의 2004년 예산은 6조 5994억 엔으로 일반 세출 전체의 12.67%를 차지하고 있다(후생노동성 42.37%, 국토교통성 14.55%, 방위청 10.29% 등). 이를 다시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의무교육비 국고 부담금(41.5%), 국립대학법인 운영비교부금(22.9%), 과학기술 진흥비(13.4%)에 이어 생애학습과 문화스포츠에 5124억 엔으로 전체 문부과학성 예산의 8.4%를 배분하고 있다(文部科學省 2004c).

생애학습관련 시책별로 살펴보면, 청년의 자립도전 플랜의 추진을 통한 커리어 교육에 가장 많은 10899억 엔이 배분되어 있으며 새로 신설된 아이들의 장소 만들기 신 플랜의 지역아동 교실 추진 사업에 7000억 엔이 투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교육뿐 아니라, 학교교육은 물론 가정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역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교육재정에 대한 국고보조가 10%에 지나지 않고 도도부현과 시정촌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일본의 재정구조를 생각하면(吉武 2003, 白石 2000), 생애학습에 관한 문부과학성의 예산이 우리와 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2004년도 문부과학성의 생애학습 관련 시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03년	2004년	증감액
1. 아이들의 자리 만들기 신 플랜	0	7000	7000
(1) 지역아동교실추진 사업(신규)	0	7000	7000
2. 가정교육지원의 충실	1430	1427	-3
(1) 가정교육에 관한 상담체제의 충실과 학습기회의 제공	1079	1083	4
(2) 신교육가정수첩(육아힌트집) 배포	351	344	-7
○신가정교육수첩(육아힌트집) 배포	340	309	-31
○전국가정교육포럼 개최	11	36	25
3. 청년의 자립 도전플랜의 추진과 커리어 교육	10899	11198	299
(1) 전수학교교육의 진흥	1246	1292	46
○전수학교를 활용한 청년의 자립도전지원사업(신규)	0	510	510
○전수학교 사회인 캐리어 업 추진 사업	1246	782	-464
(2) 여성의 캐리어 형성지원 플랜(신규)	0	49	49
(3) 방송대학의 충실	9561	9796	235
(4) 지역 사회인 캐리어 업 추진사업	92	16	-76
(5) 대학개방추진사업(신규)	0	45	45
4. 봉사·체험활동 추진	1131	1035	-96
(1) 지역과 학교가 연계·협력하는 봉사·체험활동 추진사업	1131	1035	-96
5. 생애학습기회제공의 추진과 기간시설의 운영정비	7925	6720	-1205
(1) 생애학습시책의 추진	4074	1943	-2131
○사회교육활성화 21세기 플랜(신규)	0	147	147
○생애학습분야에서의 NPO지원사업(신규)	0	35	35
○교육미디어를 이용한 학습의 추진	659	568	-91
○현대적 과제의 학습기회 충실	677	716	39
○생애학습추진체제의 정비	2738	477	-2261
(2) 생애학습기간시설의 운영 및 정비	3851	4777	926
○독립행정법인 국립과학박물관	3086	4034	948
○독립행정법인 국립여성교육회관	765	743	-22

출처: 文部科學省(2004b). 「文部科學省事業評価書—平成16年度達成年度到來事業—」, 文部科學省(2004c) 「文部科學廣報」 No. 47을 참조로 작성.

### 3. 생애학습을 통한 지역재생 시책

특히 근년의 지역사회의 도시화와 과소화의 진행, 주민의 현저한 유입과 유출, 지역행사의 감소, 지역의식의 희박화 등으로 지연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활성화, 특색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만들기가 중요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도쿄 일극·일축 중심의 국토구조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다축형 국토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 첫째 지역의 선택과 책임을 통한 주체적인 지역 만들기와 둘째, 참가와 연계를 강조하는 [21세기 국토 그랜드 디자인]을 통해 지역재생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애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되었다(地域づくり支援アドバイザー會議 2004). 1997년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규제완화 정책의 시행을 배경으로, 특히 생애학습에 있어 주민참가, 지역특성, 네트워크 행정 등을 키워드로 다양한 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辻田 2004). 지방분권화 시대에서의 지방의 재량권과 자주성을 확대하기 위해, 구조개혁특구제도를 신설하고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에 관한 권한을 중앙성청에서 지방자치체로 이양하는 엠파워먼트(empowerment: 권한이양)로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國土交通省都市・地域整備局企畫課 2004).

지역 역량의 강화를 위해 생애학습이 긴요한 이유로는, 먼저 생애학습이 활성화되는 것 자체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생애학습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시민을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네트워크가 다른 모든 영역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각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안고 있는 쓰레기처리 문제, 자연·환경보호, 노인 개호·복지 등의 다양한 현대적 과제는 주민 스스로가 학습하고 이해하여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생애학습 참가가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 만들기는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사업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의 주민 활동의 촉진, 인간관계의 확대, 지역 만들기를 위한 리더와 지원자의 양성자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생애학습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던 지연적인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면서 지역 교육력 강화의 수단으로 생애학습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生涯學習と地域づくり研究會 2004).

1987년 임시교육심의회 제3차 답신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 전체에서 생애학습을 추진하는 체제를 전국에 정비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생애학습을 추진하는 지역 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의 장을 정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활동이 사회생활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지역의 시설과 인재의 효율적인 활용,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생활기반의 정비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문부성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생애학습 모델 도시 사업을 만들어 시정촌에 대해 [생애학습 마을 만들기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생애학습 도시/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후, 많은 도시에서 [생애학습 도시/마을 만들기]가 추진되었지만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다양한 생애학습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성과를 활용하여 이를 지역 만들기 활동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새로운 지역만들기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文部科學省 2003).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점은 첫째, 교육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 만들기 사업이 주민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할 뿐으로 주민이 학습 성과를 살려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생애학습과 지역 만들기와의 관계성이 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세 번째로 지역을 만드는 종합적인 행정의 측면에서 교육 관계 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가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① 생애학습을 통한 지역 만들기를 명확히 하고, ② 지역 만들기 사업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을 구상하며, ③ 주민의 학습 성과를 살려 (주민참가) 사업을 계획할 뿐 아니라, ④ 공민관 등의 사회교육시설의 역할을 혁신한다는 4가지 원칙에 따라 노동후생성, 내각부, 국토교통성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재생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교육심의회 생애학습 분과회에서는 [관에서 민으로], [국가에서 지방으로]라는 지역재생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자립을 위해 각 정부부처의 횡단적인 연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적은 예산 부담으로 민간 활동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정책군]을 통해 정부와 지역, 민간의 삼위일체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中央教育審議會生涯學習分科會資料 2004b). 특히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의 2004년도 지역진흥시책을 보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속에서 의도적·조직적인 학습활동 뿐 아니라 스포츠 활동, 문화활동, 취미, 레크리에이션 활동,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누구나 언제나 학습기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고 그 성과가 적절하게 평가되는 생애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지역진흥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04년 1월에는 [지역 만들기 지원실]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지역 재생을 꾀하고 있다. 지역 만들기 지원실이란 문부과학성의 생애학습정책국을 중심으로 초등·중등교육국, 고등교육국, 스포츠·청소년국, 문화청, 지역과학기술진흥 담당창구인 과학기술·학술정책국(지역과학기술진흥실)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① 지역 진흥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의 기획·입안, ② 지역 진흥에 관한 상담과 요구사항의 파악, ③ 지역 진흥 전문가의 파견 및 지도자 정보 제공, ④ 성내 관계부국과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단체 등과의 연락·조정, ⑤ 특색 있는 지역진흥 사례의 전국보급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역 교육력을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이다(文部科學省 2004e). 구

일본의 평생학습 정책의 전개와 실천

체적으로는 일상의 생활에서 다양한 문화에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모델사업을 실시하며 특색 있는 대학교육을 지원하고 국립대학의 지역공헌을 촉진하고 지역에 서의 청소년 체험활동을 충실히 하는 등의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표2> 문부과학성의 2004년도 지역진흥시책 일람

사 업 명	예산	사 업 명	예산
1. 생애학습 추진을 통한 지역 만들기		5. 스포츠 진흥을 통한 지역만들기	
○ 생애학습 지역만들기 모델지원 사업	41	○ 종합지역스포츠클럽 육성모델 사업	-
○ 생애학습 페스티벌	123	○ 종합지역스포츠클럽 육성추진 사업	1011
○ 성정연계 체험형 아동 환경학습추진사업	121	○ 전국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축제	154
○ 청소년 장기 자연체험활동 추진사업	61	○ 광역 스포츠 센터 육성모델 사업	328
○ 전국 아동 독서추진캠페인	100	6. 지역문화의 진흥을 통한 지역만들기	
○ 생애학습활동의 IT화 지원사업	138	○ 국민문화제	180
○ 외국어 장기 체험활동추진사업	14	○ 예술정보플라자	114
○ 지역과 학교 연계의 봉사, 체험활동 추진사업	1000	○ 무대예술 체험 기획의 확보	2540
○ 지역 아동 교실 추진사업(신규)	7000	○ 학교문화활동의 추진	144
○ 전국가정교육포럼개최	25	○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425
○ 가정교육 지원 종합추진사업	1083	○ 문화예술을 통한 창조 도시 지원사업	759
○ 남녀의 가정과 지역생활 충실지원사업	20	○ 문화재간조물 보존수리사업	6136
○ 여성의 커리어 형성지원사업(신규)	49	○ 전통간조물군 보존수리사업	866
○ 사회인 커리어업 추진 계획	294	○ 사적 보존정비 활용사업	24527
○ 고령자의 사회참가촉진에 관한 특별조사연구	8	○ 중요문화재 보존 활용 사업	120
○ 사회교육활성화 21세기 플랜(신규)	147	○ 민속문화재 전승 활용 사업	125
○ 생애학습분야의 NPO지원사업(신규)	35	○ 예술 거점 형성사업	200
2.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만들기		○ 문화 경관의 보호	-
○ 지역과 학교 연계시설정비사업	148	7.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지역 만들기	
○ 유치원의 육아지원활동 추진	334	○ 지식 클러스터 창성 사업	9000
3. 고등교육기관을 활용한 지역만들기		○ 도시 지역 산과학 연계촉진사업	3400
○ 국립대학 공동연구센터의 설치	-	○ 지역선도 과학기술 기반시설 정비	400
○ 공개강좌의 실시와 학교 시설의 개방	921	○ 지역결집형 공동연구사업	운영비*
○ 대학 개방 추진사업	45	○ 중점지역연구개발추진사업	운영비*
4.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만들기		○ 지역연구개발추진거점 지원사업	운영비*
○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문화활성화 사업	108		

주)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비란 독립행정법인 과학기술재단의 운영비를 말함.

출처: 文部科學省(2004d) 『平成16年度文部科學省における地域振興施策一覽』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 정부는 학습 성과의 활용의 장을 학습자 개인의 욕구는 물

론 지역사회의 공공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습활동기회와 정보의 제공을 통해 자원봉사의 육성과 커뮤니티를 창조함으로써 지역재생을 꾀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Ⅲ. 지역 재생을 위한 실천사례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재생 정책의 일환으로 문부과학성을 비롯한 중앙 성청은 물론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지역재생을 위한 실천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내각부의 2004년 국민백서, [사람과의 관계가 바꾸는 생활과 지역 -새로운 공공으로의 길-]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공서비스를 새로운 주체가 유상으로 제공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권에서 목적지향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內閣部 2004). 앞서 살펴본 문부과학성의 지역진흥시책 중, 2004년 신설된 정책들의 구체적인 실천사례를 들어 봄으로써 생애학습정책들이 지역에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지역 아동 교실 추진 사업(2004년~2006년)

1980년대 이후 지역붕괴, 가정 붕괴가 끝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학교가 경쟁의 장이 되어 지역과 가정의 계층분화가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에서 등장한 사업으로, 학교시설의 지역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과 학교의 재생을 꾀하는 것이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여유롭고 건강한 아이들을 육성하기 위해 [활동거점]을 확보하여 스포츠, 문화활동 등의 다채로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학교가 일체가 되어 방과 후와 휴일의 [아이들의 자리 만들기 실프랜]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역 인재의 확보와 등록을 촉진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역 아동 교실」에 참가할 수 있도록(1차 년도에는 7,000교, 2차 년도에는 14000교, 3차 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 하고, 학부형들뿐 아니라 퇴직교원, 대학생, PTA, 사회교육단체, 스포츠 클럽 지도원 등, 지역사회와 기업의 지역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교육력·체험활동추진협의회, 체험활동지원센터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등록된 인재를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① 학교 교정을 활용한 전통 놀이, ② 그림 그리기 등의 문

화활동, ③ 야구나 축구와 같은 스포츠 활동, ④ 컴퓨터 학습 활동, ⑤ 공작 활동 등을 통해 등교거부, 비행, 학교폭력 등을 방지하고 자주성과 사회성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책이다. 구체적인 활동사례로 미즈사와시(水澤市)의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자리 만들기]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미즈사와시(水澤市)의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자리 만들기]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지역의 사회화 기능의 저하로 보고, 대증요법적인 비행대책이 아닌 종합적인 건전 육성의 시점에서 비행방지를 고려하여 아이들의 자주성과 사회성을 기르는 장으로 [아이들의 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에 있는 3개의 중학교 내에 [화이트 캔버스], [파스텔 하우스], [미즈사와 어린이 센터]라는 명칭의 [자리(이바쇼:いばしょ)]를 설치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3시에서 오후 7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로 장소제공의 기능 뿐 아니라 자연체험, 육아체험, 조리체험, 음악체험의 4개 프로그램을 월 1회 개최하여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발견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자리]에는 정규 프로그램이 없으며 놀이도 인간관계도 아이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면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상주하는 유스워커(youth worker)를 배치하고(20 명의 등록자 들이 교대로 대응) 아이들 스스로가 자리 만들기에 참가하고 계획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미즈사와시는 세워진지 30년이 넘는 화이트 캔버스라는 건물을 아이들 스스로가 내장과 레이아웃을 결정하고 개수작업 또한 지역주민의 선의의 지도와 협력 아래 직접 꾸미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정한 규칙으로 운영하는 자유교류의 장이라는 이념 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아이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2. 사회교육활성화 21세기 플랜(2004년 ~ 2008년)

소자녀화와 고령화, 국제화, 정보화라는 사회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학습 요구 역시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지역과제 또한 환경문제, 육아지원 등으로 다기에 걸쳐 있어 새로운 사업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지역의 사회교육시설이 중심이 되어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선구적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전국에 널리 보급시킴으로써 지역 교육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바로 사회교육활성화 21세기 플랜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교육활성화 종합추진 사업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요구파악에서 사업실시후의 평가체제의 구축까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모델

사업을 실시(예: 기능고도화사업, 중점분야 상호연계사업),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평가에 대한 조사 분석과 효과 측정을 통해 문부과학성의 위탁사업에 대한 전체평가를 하고,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선진사례를 보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① 지역의 현상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② 사회교육시설간의 연계와 민간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교육시설의 특징과 매력을 살리고 있는지, ③ 점검평가를 통해 유효성과 과제의 추출 및 과제에 대한 대응책이 제시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선구적인 활동이라 보이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에서는 2004년도 [사회교육활성화 21세기 플랜]을 모집하여 신청을 한 39개 사업 중에서 26개를 채택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채택된 도야마현의 사회교육활성화 21세기 플랜 실시운영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도야마현(富山縣)의 2004년도 사회교육활성화 21세기 플랜 실시운영지침

완전 학교 주 5일제의 도입, 봉사체험활동의 추진, 가정교육 지원, 민간능력의 활동 등의 현대적 과제와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민관 등의 사회교육시설의 새로운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사회교육시설이 중핵이 되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에서의 사회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와 시정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관계자, 사회교육관계자, 학교교육관계자, PTA 관계자, 육아지원단체관계자, 고령자 지원관계단체, 환경교육단체, NPO, 자원봉사단체, 등이 연계하여 체제를 정비하고 사회교육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 모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http://www.pref.toyama.jp>).

① 사회교육활성화 추진위원회: 사업실적에 따른 앞으로의 사회교육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 사회교육활성화추진계획에 따라 사회교육관계사업의 기획과 입안 및 실시, 사업실시 후의 조사, 분석, 평가한다.

② 모델사업의 실시: 공민관이 주체가 될 경우에는 복지부국 병원, 고령자 자원봉사 단체 등과 연계하여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도서관의 경우에는 창업세미나 등의 중점분야 상호연계 사업을 실시한다.

### 3. 여성의 커리어<sup>4)</sup> 형성 지원 플랜(2004년 ~ 2006년)

4) 여기에서 말하는 커리어란 직업과 경력뿐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력(생애학습력)을 포함한다 (生涯教育審議會答申 1999).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의 유동화, 소자녀화 현상과 고령화, 고도 정보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커리어 형성을 위한 학습기회와 정보의 체계적 정비가 미비하므로 남녀공동참회<sup>5)</sup>의 구현을 위해 내각부와 공동으로 여성의 생애학습기회의 확대와 사회참여 지원책을 강구하는 계획이다<sup>6)</sup>. 여성의 커리어 형성 강좌의 부족(전체강좌의 2%)으로 인한 학습기회의 미비와 생애학습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음 활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직업 정보, 역할 모델, 카운슬링의 부족으로 생애설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 육아, 노인개호(老人介護: 노인 보살피기) 등으로 재취직이 곤란한 여성을 위해 학습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학습정보의 제공과 학습 코디네이트 등의 원 스톱 서비스, 학습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취업과 NPO 활동으로 이어주는 교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학습기회의 정비를 위해 학습정보의 제공, 학습 상담(학습 프로그램가이드를 활용한 학습 코디네이트), 커리어 형성에 관한 카운슬링, 학습 성과를 연계시킨 커리어 형성에 관한 상담, 학습자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고 학습활동 지원자의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학습사업 지원을 통해 도도부현에는 행정과 NPO 등의 민간단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학습기회의 정비와 남녀공동참회에 관한 학습의 전문적 지도자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정촌에 대해서는 성인 여성이 자기의 자질과 능력 향상, 또는 생활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습할 수 있도록 여성학급 개설을 지원, 조성하고 있다.

#### 4. 생애학습 분야의 NPO 지원사업(2004)

지역주민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과 생애학습 분야의 NPO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생애학습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선 문부과학성에 NPO관계자, 행정관계자, 학식경험자, 교육관계자, 민간 교육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생애학습 분야의 NPO 추진위원회 설치하고 전국 NPO에 관한 실태를 파악, NPO 지원 방향에 대한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애학습 분야에서의 NPO 지원사업 위탁을 위해 행정기관, 민간교육사업자,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우리 마을 생애학습 NPO 위원회」를 설치(전국 7개소)하여 연수회, 워크숍 개최, 기존의 NPO 지원, 상담, 정보수집과

5) 남녀가 공동으로 참가하고 계획하는 사회

6) 육아와 노인개호로 인한 이직률이 30대 30%, 50대 10%에 이르며 무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욕도 증대하여 20-49세 77.9%가 재취업 희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본의 여성관리직은 8.9%로 인간개발지수는 173개국 중 9위인데 반해 성별관리지수(GEM)는 70개국 중 44위, 여성의 경제활동 상황은 75개국 중 69위로 생애학습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內閣部 2004).

네트워크 구축, 지역 실정에 맞는 행동계획의 책정, 생애학습 분야의 NPO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이익 전액과 자여재산을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경영 방침을 가진 비영리형 주식회사(Non Profit Company)까지 등장하여 오카야마(岡山縣)에서는 2004년 전국 최초로 주식회사 아사히(朝日) 학원이 등장하여 학교 이익을 지역 자치단체에 전액 기부하고 있다고 한다(日本NPO學會 2004). 내각부가 소개하고 있는 후쿠오카현 도요즈 마을의 NPO법인 신문 환경 시스템 연구소의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內閣部 2004).

### 후쿠오카현 도요즈(福岡縣豐津町) NPO법인 신문 환경 시스템 연구소

후쿠오카 신문 환경 시스템 연구소에서는 NPO 법인 취득을 통해 폐지 신문을 공공교통기관의 승차권과 바꿀 수 있는 지역통화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신문의 리사이클 추진과 공공교통기관의 이용 증대를 목적으로 지방의 조성금을 바탕으로 지역통화를 발행하고 신문지는 주민들이 바코드를 붙여 여기에서 얻어진 포인트를 지역통화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3270세대 중 100세대가 회원이 되어 지역통화 [폐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신문 자원 리사이클 촉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① 회원 가입: 회원 희망자는 가입과 동시에 바코드가 인쇄된 종이를 받는다.
- ② 신문회수와 폐파 발행: 바코드를 신문에 붙여 월 2회의 회수일에 가져가면 무게에 따라 포인트(1kg=1포인트)가 가산되어 일정량(30포인트=30폐파)에 달하면 지역통화 30폐파(80엔 상당)와 교환한다.
- ③ 폐파의 이용: 철도 회수권(400엔=150폐파), 분해성 쓰레기 봉투(5장=30폐파)와 교환하기도 하고 폐파를 직업 노선버스 승차권으로 이용한다.
- ④ 신문 재활용: 연구소가 회수한 신문은 폐지수집 가게에 1kg당 3엔으로 판다.
- ⑤ 조성금의 수령: 연구소는 매월 신문 수집량을 보고하고 1kg당 5엔의 조성금을 받는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역통화를 도입하여 주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신문지를 소각하는데 1kg당 약 32엔의 비용이 지금은 1kg당 5엔의 조성금이 들 뿐이어서 주변 지방공공단체 주민의 참가 요망이 쇠도하고 있다고 한다(內閣部 2004).

이상으로 지역재생 실천사례를 살펴보았다. 2005년도에는 지역재생의 본격적인 틀을 구축하고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지역의 지방장개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교육재생플랜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스포츠·문화 활동 등을 통해 주민 교

류를 촉진하고 지역사회를 재구축함으로써 살기 좋은 사회의 실현에 문부과학성 전체가 횡단적인 지역교육력 재생을 꾀하고 있다(文部科學省 2005). 그 내용을 보면 ① 지역교육력을 결집하여 아이들의 방과 후와 주말의 체험활동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아동추진사업 대상 학교를 2004년의 4,000개에서 8,000개로 확충한다고 한다. ②지역자원봉사 활동추진사업을 705지역으로 확충하고, ③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 육성추진사업에 13억 6천 6백만 엔의 예산을 배분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④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풍부한 인간성과 다양한 개성을 육성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3억 4천 7백만 엔을 투입하여 전국 94 지역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 IV. 시사점 및 제언

이상의 일본 생애학습에 대한 최근의 정책동향과 실천사례를 통해 일본 생애학습 정책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생애학습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는 생애학습의 필요성이 주로 순환교육을 통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 노동력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교육제도에서 유래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학습이 구상되었다는(白石 2000) 점이다. 학교교육 뿐 아니라 가정교육, 직업교육을 통합하는 소규모의 지역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경제발전,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생애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 문부과학성이 주체가 되어 많은 생애학습체제를 정비하고 있지만 실제 생애학습과 사회교육이라는 용어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념적, 개념적으로는 생애학습의 한 분야가 사회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생애학습과 사회교육 간의 관계가 애매하여 지역재생을 위한 생애학습 추진에 마이너스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鈴木·津田 2003).

다른 하나는 모든 정책에서 중시되고 있는 공공(公共)의 문제이다. 공공이라는 미명하에 학습자와 지역사회를 전제로 한 생애학습이 [생애학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습자에 대한 권력개입을 용이하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佐藤編 2003). 가장 대표적으로 NPO의 문제를 들 수 있다. NPO는 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또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밑으로부터 여론을 형성하거나 직접적으로 정부나 국가를 움직이는 활동을 말한다(三木 2004).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서 벗어나, 학습기회의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과 NPO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실제로 NPO에 대

해서는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의 지속성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어, 자주성을 존중하고 대등한 권리를 인정하여 NPO와 행정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NPO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활동에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 1. 시사점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부과학성의 지역재생을 위한 생애학습정책과 그 실천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교교육을 포괄하는 광의의 생애학습사회의 건설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교육운동의 사상적 풍부함 다채로운 실천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과 연관시켜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佐藤 2003). 그러나 80년대 이후 생애학습사회의 건설을 위해 생애학습의 시점에서 학교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村山 2003). 특히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회교육은 물론이고 학교교육, 가정교육 등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폭넓은 평생학습 사회실현에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한 생애학습 이념을 통한 사회 전반의 개혁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번째 시사점으로는 범부처적인 차원의 연계강화를 들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문부과학성의 생애학습정책국이 중심이 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사회 중심의 평생교육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문부과학성내의 고등교육국, 초·중등교육국, 스포츠·청소년국 등뿐 아니라 중앙의 타 부처(과학기술청 등), 지방 자치단체, 지역의 대학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생애학습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 각 부처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 및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는 일본의 시도는 우리 나라 평생학습 연계체제의 구축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격차의 확대와 이에 따른 사회계층별 학습참여 기회의 제고를 위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문화의 형성을 중시하고, 비행청소년과 여성 등, 소외계층의 생애학습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재생을 꾀하기 위한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로는 지역 NPO를 통한 적극적인 자기주도적 활동을 장려한다는 점이 매우 시사적이

다. 생애학습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직업세계, 사회의 시민색터, 그리고 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비형식적 학습기회의 제공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섯째, 평생학습리더의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학습, 혹은 학습공동체 활동의 학습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실천사례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다. 지도자의 발굴, 등록, 파견과 연수, 교류, 연계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역의 학습요구에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연구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2. 제언

이상과 같은 시사점을 통해 우리 나라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거점이나 센터로 학교교육을 활용함으로써 학교교육을 포괄하는 광의의 평생학습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사회교육으로 제한하여 사용되었던 평생교육의 개념을 학교교육과 통합하여 평생학습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의 양적 질적 확대가 지역사회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며 학습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국가차원의 개방형 평생학습 시스템의 구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우선 중앙과 지역 행정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평생교육법에는 중앙의 평생교육센터, 시도 단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시군구 단위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중앙과 지역은 물론이고 다른 부처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시설과의 연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지방 행정의 각 부처, 또는 지역 내의 각종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역할 분담이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중앙과 지역 및 각 부처간 통합적 연계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차원에서 관련 주체간의 파트너십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 지방자치단체, 고용주단체, 근로자단체, 교육훈련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련 주체 간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유인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인프라를 구

축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노인, 여성, 저학력층, 저소득층 등의 소외계층 집중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학습 집단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각 학습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이가 개인의 능력개발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체적 학습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피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역의 평생학습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조직(NGO)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 활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사적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민간 학습 공동체의 구현을 통해 사회통합 및 건전한 시민사회형성이 촉진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위한 평생교육사와 같은 전문적 리더의 양성이 필요하다. 평생교육기관과 단체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한되어,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교수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개발을 필두로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신일(2003).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방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분(2004). 한국 평생학습의 비전과 발전전략 **21세기 지식혁명과 평생학습사회 국제회의 자료**. 111-133.
- 양병찬(2003). 지역사회의 학습력제고 **평생학습-지식강국으로의 첫걸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3-214.
- 한준상(2003). 참여정부의 평생교육 비전과 정책방향 **참여정부의 평생교육정책탐색**.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3-23.
- Longworth, N. & Davies, W. K.(1996) *Lifelong Learning*, Kogan Page, London.
- 澤野 由紀子(1999). **生涯學習の歴史**. 川野辺敏・山本慶裕編 著. **生涯學習論**. 東京: 福村出版
- 國土交通省都市, 地域整備局企畫課(2004). **今後の地方振興方策の在り方に關する基礎調査報告書**. 國土交通省
- 佐藤一子(2003). **子育て・文化協同と學校. 現代社會と教育—學校—**. 教育科學研究會編. 東京: 大月書店. 242-271.
- 佐藤一子編(2003). **生涯學習がつくる公共空間**. 東京: 柏書房
- 財団法人日本地域開發センター(2004). **地方都市再生のための人材基盤等地域力整備に關する調査報告書**.
- 白石裕(2000). **分權・生涯學習時代の教育財政—価値相對主義を越えた教育資源配分システム**.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鈴木眞理, 守井典子編(2003). **生涯學習の計畫・施設論**. 東京: 學文社
- 鈴木眞理, 津田英二編(2003). **生涯學習の支援論**. 東京: 學文社
- 生涯學習と地域づくり研究會(2004). **生涯學習と地域づくり研究會調査研究報告**. 東京: 地域づくり研究會
- 地域づくり支援アドバイザー會議(2004). **地域を活性化し, 地域づくりを推進するために一人づくりを中心として—**. 東京: 地域づくり支援アドバイザー會
- 中央教育審議會生涯學習分科會資料(2004). **經濟財政運營と構造改革に關する基本方針**.
- 中央教育審議會生涯學習分科會(2004a). **新しい時代にふさわしい教育基本法と教育振興基本計畫の在り方について—答申の概要**.

- 中央教育審議會生涯學習分科會(2004b). 今後の生涯學習の振興方策について(審議経過の報告).  
内閣部(2004). 平成16年度國民生活白書.
- 辻田昌弘(2004). 構造改革特區は地方分權のシミュレーション. 東京: 21世紀政策研究所
- 三木秀夫(2004). 市民社會と論憲. 日本NPO學會ニューズレター 6(2).
- 村山士朗(2003). 學校・教育を選ぶ自由と子どもの居場所づくり. 現代社會と教育—學校—.  
教育科學研究會編. 東京: 大月書店. 63-89.
- 文部科學省(2003). 文部科學省事業評価書平成16年度新規擴充事業
- 文部科學省(2004a). 平成15年度文部科學省白書.
- 文部科學省(2004b). 文部科學省事業評価書—平成16年度達成年度到來事業—.
- 文部科學省(2004c). 文部科學廣報 47.
- 文部科學省(2004d). 平成16年度文部科學省における地域振興施策一覽.
- 文部科學省(2004e). 地域づくりの支援—日本にひとつのまちづくりを応援します—.
- 文部科學省(2005). 文部科學廣報 58.

<http://www.pref.toyama.jp>

- 논문 접수 2005년 5월 13일 / 수정본 접수 6월 17일 / 게재 승인 6월 23일
- 김미란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東京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사회학 전공으로 석사, 비교교육사회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함.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평생교육, 비교교육, 젠더 등임.

*Abstract*

**Trend in Japan's Lifelong Learning Policy:  
Focus on Community Revitalization Policy**

Kim, Mee-Ra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mid the increasingly prevalent social tendencies toward having a small number of children and of an aging population in recent years and the advent of a knowledge-based society characterized by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Japan is striving to achieve a lifelong learning society. In particular, in an era where the foundation of local communities is weakening, Japan is pushing for a number of community revival campaigns through lifelong learning in order to promote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se campaigns are as follows: First, Japan is strongly pushing for a local lifelong learning policy encompassing both life-long and life-wide aspects, which include formal education. Second, Japan is strengthening linkages not only among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in an inter-ministry manner, but also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rd, Japan is making a concerted effort to expand learning opportunities for the underprivileged. Fourth, Japan is implementing all these activities from public perspectives through active self-directed participation of local NPOs. Finally Japan tries to promote the vitality of a community through the training of community leaders who can play the role of learning coordinators. This lifelong learning policy being applied in Japan provides valuable ideas for uplifting Korea's lifelong learning policy.

\* Key words: lifelong learning policy, learning opportunities, community revitalization